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주일예배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 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다같이

주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님 내 마음 모아

기도인도

인도자

봉 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3:1-10

다같이

말씀선포

“우리를 보시오”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복의 근원 강림하사(찬 28)

다같이

축 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어버이주일 심방을 하고 작은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화요일 저녁 7:30에 “생명의삶” 공부가 있습니다.
4. 다음 주일(7/5)부터 아동부는 지하 소예배실에서 YG는 친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현장예배를 시작합니다. 교인들께서는 친교실을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5.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원 제한이 있어서 미리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6.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영상기도회와 현장기도회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직접 혹은 우편으로 혹은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일이 이전보다 더 분주합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준비하며, 주보와 예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예배 장소를 확인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매주 예배에 참석할 인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락하고 명단을 만들고 자리 배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영상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기계적 점검은 물론이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전에 준비하던 것까지 잘 준비 해야합니다. 게다가 카메라 분실 사건 이후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양명철 목사), 주일예배용 키보드를 차에 실고(김원재 목사) 다녀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일예배가 이전보다 더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1조에 편성된 교인들이 나오는 주일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2주 전(6/14)에 참여하겠다는 숫자보다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성도들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예배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역시 예배는 함께 모여 다같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공동체성, 현재성, 현장성이 있어야 더 큰 감격이 있습니다. 5월 31일 이전 모두가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드릴 때 저는 예배를 돕는 2명과 함께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예배가 회복되면서 예배 후에 힘든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6월 22일부터 뉴욕시는 2단계가 되었고, 룩아일랜드는 6월 24일부터 3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용적의 50%까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는 유지해야하고, 위생 안전수칙도 지켜야 하기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재확산의 우려도 있는 것을 보면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1조, 2조로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현장예배를 드리며 또한 영상예배를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5,472